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3.(화) 8:00 배포 2026. 11. 2.(월) 12:00

가을배추·무 풍작, 올해 김장은 부담 없이 '한 포기 더' 담그세요!

- 농식품부·해수부 합동「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발표 -

○ 가을배추·무 생산량 크게 늘어 공급 충분… 가격 약세로 가계 부담 줄듯

○ 안정적 수급 관리와 역대 최대 할인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농수산물 소비 확대

○ 어려운 농가와 이웃 위한 '김장 한포기 더하고 나누기' 캠페인 대대적 전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상생을 위한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합동 발표하였다.

*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비율은 58.6%로 전년(64.2%)보다 5.6%p 감소하고,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23.5포기)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642천톤)보다 9.1% 감소한 583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김장용 가을배추와 무는 양호한 기상 여건 덕분에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18.5%, 11.1% 증가하여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념류도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품목(마늘, 새우젓)이 있지만, 김장철 공급량은 충분해 소비자의 김장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전망(KREI): 가을배추 121.4만톤(전년비 18.5%↑), 가을무 37.2(11.1%↑)

이에 정부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11월 9일에서 12월 6일까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김장재료의 공급 과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 공급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배추 46.5천톤(비축 10, 출하조절시설 3.5, 계약재배 33)과 무 9천톤(비축 2, 계약재배 7)을 사전 확보해 일시적 공급 부족 등 비상시에 대응하면서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비축 중인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공급해 김장철 물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생육 중인 배추, 무, 대파, 쪽파, 생강은 생육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재배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및 생육 촉진에 필요한 약제·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안정 생산에 만전을 기한다.

둘째,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소비자의 김장 부담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4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50% 할인을 추진한다.

농산물은 440억원을 동원해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 등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10.29~12.2)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도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20% 선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 (구매기간) 고령층: 11.2.(월)~11.8.(일), 전체: 11.9.(월)~11.15.(일), (할인율) 20%(최대 10만원)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하락한 오이, 애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샤인머스캣 등도 할인 대상에 포함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_김장 특별전」(10.28~11.29)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과 대중성어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셋째, 「더하고 나누는 김장, 한 포기 더의 행복」을 핵심 메시지로 김장 확대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한다. 지방정부·농협과 협력해 전국적인 김치 담그기 행사와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김장 체험행사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연계해 임직원 대상 김치 단체 구매와 가족·친지·이웃에게 김치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치 나눔 활동도 확산하고, 사회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메시지 전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김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넷째,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장비용 등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김장 더하기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특별 조사**도 강화한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정보 활용, 수입김치, 양념채소 등 원산지 거짓표시 등 단속(10.27~12.5)

**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 대상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10.12~11.30, 800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한 반면, 애쓰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김장 문화를 지닌 만큼, ‘한 포기 더 담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담당 부서 (총괄) (할인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
		담당자	사무관	유태선 (044-201-2685)
(엽근채소) (양념채소)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담당자	사무관	장성두 (044-201-2236)
(과일)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201-2060)
(수산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이석진 (044-200-54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2026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안**

농림축산식품부

더하고 나누는 김장, 한 포기 더의 행복

① 김장 한 포기 더하고, 커지는 나눔

국산 김치 소비 확대

김장 붐 조성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 지방정부·농협 등과 함께 김치 담그기 행사 및 나눔 캠페인 확대
- 소비자 참여형 김장 행사 추진
- 국산 김치 선물하기, 릴레이 메시지 등 소비 확대 캠페인 확산

② 김장재료, 안정적으로 공급

주재료 (배추·무)

가을 배추·무 안정생산 지원

-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으로 재배기술 지도 및 약제·비료 등 지원

비상시 대비 강화

-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 및 작황 악화 시 겨울작형 조기 출하 유도

부재료 (건고추·마늘·양파)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 건고추 500톤(국내 300, 수입 200) 비축물량 조기 공급
- 마늘·양파 저장량 감소 상황을 고려한 비축물량 방출 확대

③ 할인은 더하고 김장부담은 낮추고

농축산물

역대 최대 규모 할인지원 추진!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5주간(10.29.~ 12.2.) 최대 40% 할인(400억 원)
- 농할상품권 국내산 농축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200억 원) ▶ 액면가의 20% 선할인 판매

* 농할상품권 구매기간: 고령층: 11.2.(월)~11.8.(일), 전연령층: 11.9.(월)~11.15.(일)

수산물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개최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4주간(10.28.~11.29.) 최대 50% 할인(200억 원)

자조금

생산자 단체 주관 할인 추진

- 한돈 수육용 돼지고기 약 20% 내외 할인
- 마늘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마늘 최대 20% 할인